

어휘적 측면에서 살펴본
스페인 젊은이들의 언어사용:
*Historias del Kronen*을 중심으로

조 혜 진

단독 / 한국의국어대학교

Cho, Hye-Jin(2009), El uso de léxicos de los jóvenes españoles reflejado en la novela *Historias del Kronen*.

En este trabajo, intentamos señalar, por medio de la novela *Historias del Kronen*, el interesante fenómeno del lenguaje juvenil en el español actual, ya que son ellos quienes producen continuamente nuevas expresiones, las difunden por otros sectores, y con todo eso, manifiestan indirectamente la cultura y la subcultura de la sociedad a la que pertenecen. Sobre todo, pretendemos subrayar la variedad de procedimientos utilizados para la renovación terminológica, ya que muchos aspectos característicos del lenguaje juvenil son de tipo léxico; además, es aquí donde se refleja primero cómo es la lengua hablada en la actualidad, porque no es raro que una considerable parte de sus léxicos suele salir de los sectores que la originan y se incorpora a la expresión lingüística de la lengua común en busca inconsciente de mayor expresividad.

[español contemporáneo / lengua hablada / lenguaje juvenil / registro / léxico;
현대 스페인어 / 구어체 / 젊은이의 언어사용 / 사용역 / 어휘]

I. 서론

인간의 언어는 근본적으로 매우 창조적이다. 한정된 언어부호로부터 시작되는 이 창의력은 더욱 정확하고 명료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만드는 표현들을 무한하게 만들어낸다. 오늘날 이 무한한 표현들의 일부는 TV나 인터넷에서 수시로 생성되고 실생활로도 파급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언어’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고 그 생성이 즉각적으로 감지되는 거의 유일한 매체인 셈이다. 이를 통해 사회의 지탄을 받던 칭찬을 받던 간에 끊임없이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내는 주된 계층은 바로 젊은이들이다. 이들은 스스로가 창조한 유행어, 은어, 속어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완곡한 말로 얼버무리는 기성세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자신들만의 문화와 연대감을 부각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들 중 일부가 그들을 비롯한 사회 일반의 절대 다수 화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사용된 결과,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표준어 사전에 통합되는 순서를 거치기도 한다¹⁾. 즉, 특정 계층의 말이라는 차원을 넘어 공통언어의 구성요소가 되는 셈이다. 일례로, 오늘날 스페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원에 대한 지식이 없이도 특정 맥락에서 *pasta*, *camello*, *chocolate*²⁾가 뜻하는 바를 잘 알고 있듯이 말이다.

‘은어’와 같은 특정 명칭으로 딱히 분류되지 않는 스페인 젊은이들의 말은 일단 한 사회방언(sociolecto)으로 간주되며, 70년대 중반부터 일명 ‘언더그라운드’ 잡지들과 마약·범죄와 관련된 세계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그리고 당시 이들을 ‘*pasota*’나 ‘*cheli*’라고 칭하기도 하였다(Umbral, 1983). 이후 80년대에 들어서면서 *Luna de Madrid* 잡지와 *Frecuencias Moduladas*의 음악, 1984년 나달상(Premio Nadal)을 받은 José Luis de Tomás García의 *La otra orilla de la droga*와 같은 문학작품,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영화 등에 적극

1) 2004년 국립국어원 ‘신어’ 자료집에 ‘지름신’과 ‘악플’과 같은 어휘가 수록되는 것과 유사한 과정을 거치는 셈이다.

2) 이들은 사전적 의미와는 다르게 상황에 따라 각각 ‘돈’, ‘(소량의) 마약 판매자’, ‘마리화나’의 의미로 매우 빈번히 사용된다.

적으로 반영되면서, 언어 현상들 중 일부가 개혁, 적응과정을 거쳐 공통언어로 편입되기 시작하였다(Rodríguez González, 1989: 17). 특수 집단의 말이 표준어로 편입되기 전 중간매개의 역할을 젊은이들이 담당하는 셈으로, 사회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계층 혹은 그룹의 말을 대도시 젊은이들의 언어로 편입시켜버린 결과이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기성세대로 그리고 공용어로 퍼져나가면서 이 표현들에 대한 선입견이나 평가도 점차 변화하였다. 이러한 다른 차원으로의 어휘 이동은 보통 의사소통에서 표현력을 높이거나 비꼬거나 코믹하게 만들기 위한 무의식적인 노력의 결과로 판단된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새로운 표현들을 생성해내고 빠르게 전파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그 사회와 문화를 간접적으로 표출하는 계층이 바로 젊은이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사회 일각의 은어나 전문어가 자신들의 영역을 넘어 전 국민의 일상회화에까지 등장하는 것은 드물지 않은 일로서, 특히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언제나 대중적popular이었던 스페인어”(Sánchez Lobato, 1992: 67)라면 특정 계층, 그 중에서도 젊은이들의 언어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 바로 이 점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능동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스페인어라는 공통언어에도 영향을 미치는 젊은이들의 언어를 *Historias del Kronen*이라는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크게는 구어체 스페인어의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측면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왜 *Historias del Kronen*인가

젊은이들의 언어사용을 연구하려면 기본적으로 몇 가지 추상적인 틀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같은 연령대의 화자라 하더라도 언어사용까지 꼭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 젊은이들의 언어사용이 같지 않고, 시골과 대도시 젊은이들의 말이 다르며,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젊은이들의 말이 일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심지어 마드리드 내에서도

지역이나 계층에 따라 젊은이들의 언어사용 양상이 다르다. 그러나 인터넷과 TV 같은 대중매체가 마드리드 젊은이들의 말과 같은 특정 지역어(계층어)를 강하고 빠르게 타 지역에까지 전파시키고 있다. 이것이 본 연구에서 언급할 젊은이들의 언어적 특징이 다른 지역과 계층에서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우리가 마드리드 젊은이들의 일상생활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으로 유명한 *Historias del Kronen*³⁾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책이 출간될 당시 24세였던 마드리드 태생 작가 José Ángel Mañas는 동시대, 동세대의 언어를 구사하는 계층의 한 구성원으로서, 대학생이었던 자신의 신분을 바탕으로 1인칭 화법과 대화 위주의 글을 예술적 창작이라는 틀 내에서 사실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 계층의 언어사용 양상을 연구함에 있어 또 다른 고민은 연구대상이 되는 말이 쓰이는 계층 혹은 영역을 정확하게 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자녀의 말은 부모, 그리고 일반 기성세대에게 생각보다 훨씬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그들이 쓰는 단어나 어순, 관용구 등의 다수가 그다지 젊지 않은 계층에게까지 쉽게 흘러 들어가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나이가 들어서도 젊었을 때 쓰던 말을 계속 사용하는 경향도 무시할 수 없다.

Casado Velarde(1988: 101)는 젊은이들의 언어를 정의함에 있어, 그들의 언어란 “대부분이 어휘와 관련된 언어현상의 총합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서 “어휘는 세대나 집단의 연대감을 드러낸다는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폭넓은 청년층의 화법을 특징짓는다. 일반적으로 학생이자 도시민인 젊은이는 대략 14세에서 22세의 나이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이 ‘젊은이’의 생물학적·사회학적 연령에 대한 논의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숙고는 생략하기로 한다.

Casado Velarde가 언급했다시피, 어휘적 측면이 젊은이들의 말을 결정짓는 가장 큰 특징인 동시에 오늘날의 구어체 스페인어의 단면을 효과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상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관심 있게 지

3) 1994년 2월에 출간된 이 작품은 그 해 11월 이미 여덟 번째로 간행되었다. 당시의 독자층이나 사회의 열렬한 반응을 반증하는 사실이다.

켜보고자 한다.

1인칭화법의 서술로 이어지는 *Historias del Kronen*은 기본적으로 대화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 대화는 ‘viejo/a’로 지칭되는 부모나 선생님이 아닌 친구나 동료,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며, 이들의 외부에 대한 시각은 1인칭 관점의 서술이나 묘사로 이루어진다. 즉, 충실하게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특정 계층의 말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언어현상의 영역이나 경계의 모호함에 대한 고민을 한층 덜어주는 셈이다.

1994년 나달상(Premio Nadal) 결선 진출작이었던 *Historias del Kronen*은 다음해인 1995년 몬초 아르멘다리스(Montxo Armendáriz) 감독에 의해 영화화될 정도로 그 사실성과 주제 면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바캉스 시즌인 여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작품은 경제적으로 중상위 계층에 속한 몇몇 마드리드 대학생들의 일상생활을 다루고 있다. 특별한 근심걱정이나 미래에 대한 계획, 뚜렷한 도덕의식이나 의무감이 없는 주인공과 그 친구들은 *Kronen*이라는 이름의 바를 중심으로 마약이나 섹스, 콘서트를 전전하며 시간 보내는 일에 몰두한다. 대학생, 사무원, 바텐더, 마약중독자와 운반책들로 구성된 이들에게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며 과거 또한 지루하고 의미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화끈하게’ 지낼 생각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는 기존의 사회 규범에 역행하는 것이며, 기성세대와의 완벽한 대화 단절을 의미한다.

이 작품이 오늘날의 스페인, 특히 마드리드 젊은이들의 언어사용 양상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는 있지만, 그 배경이 되는 1992년에는 인터넷과 휴대폰의 엄청난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으며, 또한 스페인의 모든 청년층의 일상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이 한 단계 숙고되고 정제된 형태로 현대 스페인 특히 마드리드의 특정 계층 젊은이들의 언어사용을 현실에 가깝게 재현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으며, 우리가 살펴본 양상이 현재 스페인어에 어떻게 자리를 잡았는지 생각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라고 하겠다.

Ⅲ. 언어와 젊은이들의 문화

젊은이들의 언어는 규범어의 변이형이라기보다는 구어체 변이형이라는 것이 옳다. 발화 상황이나 지속적인 대화의 특성으로 볼 때 이 사실은 더욱 더 확실해지는데, 본 연구에서 corpus로 선택한 소설에서도 젊은이들이 동료들과의 대화와 기성세대와의 대화에서 사용역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작가는 기성세대의 주류 문화와 가치 체계, 사고방식, 사회 시스템 등에 상반되는 삶과 중산계층 출신 보통 대학생의 삶을 이중적으로 꾸려 가는 젊은이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으므로, 규범어보다 더 비형식적인 구어체가 사용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다. 이들의 언어는 당연히 구어체 변이형다운 특성을 나타내는데, Seco(1973: 361)에 의하면 이는 “registro formal de los niveles medio y popular de la lengua común, caracterizado por una actitud espontánea”, 즉, 공통규범어의 다양한 층위 중에서 대중어의 비형식적인 사용역이기 때문인 것이다.

물론 한 언어 사회의 특정 계층에 따른 변이형이라고 할 수도 있으므로 구어체 변이형인 동시에 사회방언이기도 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정된 연령과 사회적 행동, 성향을 가진 특정 사회집단 내부의 의사소통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집단은 대표성을 띄는 공인된 문화를 대체하는 하위문화만의 은어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이와 같은 반문화적 특성 때문에 이들의 언어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셈이다.

정리를 하자면, 이들의 언어는 기능과 상황적 요소에 의해 좌우되는 비형식적 변이형이며, 이는 구어체만의 특성이다. 아울러, 사회적 변이형으로서 젊은이들의 하위문화 표현에 사용되는 언어는 일종의 ‘은어’로 분류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은어’는 주류문화 변방에 위치하는 자신들을 표출하기 위해 특정한 사회 집단에 의해 사용되며, 이들에게 거부당한 규범어에 대비적으로 집단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일치감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그 구성원들을 규정짓고 특징을 부여한다.

이 사회집단의 언어가 중시되는 이유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만의 어휘나 형태·통사적 요소로 간주되던 특징의 일부가 규범어로 편입된다는 사

실에 있다. 이렇게 하여 특정 언어 현상의 괄목할 만한 전파와 확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IV. 어휘사용의 특징

앞에서 언급한 Casado Velarde의 주장처럼 젊은이들의 특징적인 언어사용은 그들의 어휘에 가장 잘 반영되어있다. 창조적인 능력이나 은유적 사용이 부각되는 것도 바로 어휘적인 측면이다. 다음에서 우리는 이를 세분화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단, 과도하게 저속하여 사용 영역이 크게 제한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표현들은 생략하기로 한다.

1. 호칭어

일반적인 보통 명사 외에도 관사를 전치한 인명이나 은유적 표현, 감탄사, 애칭이나 별명 등이 다양하게 호칭어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보통 명사

스페인 젊은이들의 말에서는 tío/a, tronco/a, colega(colegui), capullo/a 등의 호칭어가 가장 널리 쓰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Historias del Kronen*을 살펴본 결과, tío나 colega보다는 tronco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tío/a의 쇠퇴라기보다는 지역별, 집단별 혹은 개인별 차이로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tronco와 capullo의 경우, 원래의 의미와 상관없는 은유적 표현인 호칭어로 쓰일 때는 상대에 따라 성수변화를 해야 하는 비문법적 상황이 발생하며, colega는 더 친밀한 경우 colegui로 쓰일 수 있다. 반면, capullo/a는 대부분 욕설로 쓰인다. 구어체가 아니거나 상대와의 친숙도가 변화하면 이에 따라 호칭어도 hombre/mujer, señor/a 등으로 대체되며, 더욱 속된 형태인 macho(machote)로 바뀔 수도 있다. 물론 이 어휘들은 persona, chico/a를 대체하는 일반 명사로도 사용될 수 있다.

한편, 마드리드 중상위 계층 청년들인 *Historias del Kronen*의 주인공들이

사용하는 호칭어는 ‘동료’와 ‘외부인’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Colega, tío, tronco 등은 같은 집단의 동료를, 이질감이나 적대감, 거리감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pijo, facha, pringao, pasmao, pardillo 등으로 대변된다. 중립적인 전자의 형태들과 달리 후자는 출신계급이나 직업, 지리·정치적으로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다. 기타 호칭어로 사용되는 욕설들은 다음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 Qué rape, *colega*, qué rape(212).
- (2) - Venga, *tíos*. Le llamáis a Roberto y él os dice cómo llegar a mi casa(201).
- (3) - Yo, *tronco*, lo siento, pero estoy acabado(175).
- (4) - ¿Pero qué has hecho, *pringao*? Ten un poco de cuidado(179).
- (5) - El billar es una mierda y está desnivelado, pero siempre hay algún *pardillo* que echa una partida(22).
- (6) Joli habla con los *corbatos* que están jugando al billar(116).
- (7) - Si es que todos en esa ciudad son iguales, unos *fachas*(128).
- (8) - No sé cómo puedes ser amigo de esos *pasmados*...(60)

여성이 화자인 경우엔 주인공과의 관계에 따라 hijo, niño, chico, tío 그리고 욕설의 의미로 *cabrón*이 사용되었을 뿐, 다양한 계층의 여성이 등장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경향을 추측하기 어렵다. 반대로, 여성을 지칭하는 경우가족이든 연인이든 친구든 간에 tía, piba, cerda, gorda 등이 사용되는데, 특히 *cerda*는 경시하거나 모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고, *piba*는 아르헨티나에서 *chica*를 뜻한다.

- (9) - Oye, ¿quién era la *piba* ésa?(105)
- (10) - Porque me dan asco las *cerdas*(95).
- (11) - No te olvides de que hemos quedado a las nueve y media para ir a cenar - me recuerda la *gorda*(43).
- (12) - El otro día [...] entró una *tía* que se llama Mari Carmen...(51)

연장자, 특히 부모나 조부모는 공통적으로 *viejo/a*로 지칭된다. 물론 모든 젊은이들이 이 어휘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소설을 통해 반사회적이고 경멸적인 느낌을 표현하며 세대 간의 의사소통 부재를 나타낸다. 반면, 동생의 경우는 *hermano/a* 보다는 *enano/a*로 표현된다.

(13) Cuando termina la comida, los *viejos* se van a dormir una siesta(28).

(14) La *vieja* y yo reímos. Mi padre [...] cuenta cómo, cuando era chico, un día le pidió a su *viejo* una navajita de plata que le gustaba mucho(47).

(15) El *vejete* trae copas(71).

(16) - Carlos. Para ti - grita el *enano*(122).

한편, 잘 알지 못하는 외부인에게는 *menda*라는 호칭이 부여된다.

(17) - Pero qué pasa, *menda*, si sólo es un porrito, tronco(109).

(18) - Pues he hablado con el *menda* y he quedado para mañana(88).

이 외에도 다수의 욕설들이 호칭어로 사용되는데, 이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2) 인명

다른 사람을 지칭하거나 부를 때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대화에서 예사롭게 사용되는 형태이다. 특히 성에 합당한 정관사를 붙여서 언급하는 경우는 교육수준이 낮거나 저속하거나 시골말로 간주되어 왔는데,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도시 젊은이들이 비하의 뉘앙스로 제 3 자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음을 소설을 통해 확인하였다.

(19) - ¿Quiénes vais? ¿Los de siempre?

- Sí, ya sabes, el *David*, el *Fierro*, el *Guille* y yo(89).

(20) - Y la *Joli*, sonriendo y diciendo: ¿son para mí esos bombones?,

qué simpático...(213)

2. 동사

동사를 규범어와는 다른 의미나 기능으로 사용하거나, 어느 상황에나 통용되는 동사, 일명 ‘만능어휘(comodín)’를 선호하는 것은 젊은이들의 말이 나타내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다. 특히 전형적인 타동사를 재귀동사나 자동사로 사용하는 경향이 짙다. 대표적인 몇몇 동사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 **Pasar:** 규범어에서 자동사나 타동사로 모두 쓰이며 젊은이들의 말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pasar* 동사는 1980년대 마드리드의 은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그 어떤 일에도 관심 없는 사람’을 뜻하는 *pasota*를 낳기도 했다. 구어체에서 의문문으로서의 억양이 없는 ‘*qué pasa*’는 빈번하게 인사말로 사용되며, ‘*pasar de algo/alguien*’은 ‘무시하다, 이해하지 못하다, 무관심하다’의 의미로 일반화되어 쓰인다. 젊은이들의 언어를 초월하여 스페인어 구어체에서 널리 쓰이는 이 구문은 전치사구를 이루는 어휘에 따라 더욱 특별하고 다양한 의미로 바뀐다. 이 외에도 ‘*pasarlo*’, ‘*pasar por un lugar*’, ‘*pasar el corte*’, ‘*pasarse*’, ‘*pasar algo a alguien*’ 등의 다양한 숙어가 사전에 수록되면서 규범어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이들 중 ‘*qué pasa*’, ‘*pasar de algo/alguien*’, ‘*pasarse*’는 *Historias del Kronen*에 다른 표현들보다 더 자주 등장하면서, 사회와 단절된 집단이나 개인의 느낌, 혹은 ‘*colega*’들 간의 대화상황이나 반감을 표현하는데 적합한 구어적 표현임을 드러내고 있다.

(21) - *Qué pasa*, Roberto. *Qué pasa*, Carlos(62).

(22) Yo le saco la lengua y el caniche se pone a ladrar. - *No te pases* - dice Celia(54).

(23) - Bueno, había una por la que se preocupaba más que por las otras, pero yo creo que era porque ella *pasaba de él*(235).

• **Pillar:** 이탈리아어 *pigliare*(=coger)가 어원인 *pillar*는 비교적 신조어로

서, 특히 젊은이들이 구어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표현하는 필수적인 동사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목적어의 선택에 따라 그 의미가 결정된다.

(24) Arranco, *pillo* Avenida de América y salgo a la Emetreinta(25).
→ ‘coger’

(25) - *Pillamos* un mini y unas bravas(11). → ‘querer’

(26) - Si te llama Miguel, le dices que yo también quiero *pillar* y que me llame, ¿vale?(40) → ‘conseguir’

(27) - Vamos a *pillar* un chocolate con churros en el Santander(117). → ‘comprar’

(28) - ...ya es hora de *pillar* la horizontal(25). → ‘acostarse’

(29) - Quedo contigo y con Roberto a las siete y media en mi casa, *nos pillamos* unos tragos y lo hablamos todo...(43) → ‘beber’

• **Dar.** 대표적인 타동사인 **dar**는 관용구나 속어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되는데, 젊은이들은 이를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해 표현력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 중에서 ‘dar corte’, ‘dar cosa a uno’ 등은 이미 구어체 스페인어에서 ‘부끄러워하다’는 의미로 자리 잡았고, ‘dar un toque’는 ‘전화걸다’의 의미로 사용된다. 한편, *Historias del Kronen*에 쓰인 ‘dar la vena’, ‘dar de hostias’ 등은 직설적이고 저속한 느낌 때문에 특정 계층의 언어에 머물러 있을 뿐, 아직까지 사회 전반적으로 쓰이지는 않는다. 특히 ‘dar de hostias’의 경우, **dar**동사가 일반적으로 직접목적어를 수반하는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때리다’의 의미에서 특히 전치사구와 함께 사용되는 모습을 보인다. **Dar**는 직접목적어를 취하거나 전치사구와 함께 쓰일 수도 있지만 젊은이들의 경우 후자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Te doy hostias / Te doy de hostias).

(30) - A ver si le *doy un toque* al Manolo para lo de la coca(60).

(31) - ...tengo planes pero igual, si me *da la vena*, voy(90).

(32) - ...saltó el Yoni a defenderle y luego se lió el David, y al final

acabamos todos, [...] *dándoles de hostias* fuera(102).

- **Currar**: 구어체 스페인어에서 많이 보이는 어휘이며, 젊은이들이 특히 ‘trabajar’의 의미로 선호하는 동사이다. ‘일터, 직장’을 뜻하는 명사형 *curro*와 ‘근로자’를 뜻하는 명사이자 형용사인 *currante*를 파생시켰다.

(33) - ¿Tú cómo vas a salir, si tienes que *currar* hasta las doce? (101)

(34) - La última vez que hablé con él me dijo que sí, aunque en el *curro* aún pega las napias a la barra de vez en cuando(56).

(35) - Tú es que ya estás hecho un auténtico *currante*...(44)

- **Molar**: ‘좋아하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등의 여러 의미를 표현하며, 부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명사나 감탄부사 *cómo*와 쓰이기도 한다.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가장 특징적인 동사로 꼽을 수 있다.

(36) - Pues sí, me *molaría*. Pero, ¿hay de eso en España?(93)

(37) - Bueno, ¿te *ha molado*? - Pregunta Roberto(119).

- **Liar(se)**: ‘관계를 맺다, 얹히다, 연애하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며, 여기서 명사 *ligue*가 파생하였다. 계층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사회 일반으로 확산되었다.

(38) - Siempre me acabas *liando*(189).

(39) - No se me ha pasado nunca por la cabeza *liarme* con tu hermana.

Es un bebé(191).

- **Palmar**: 매우 저속한 구어적 뉘앙스를 지니며 ‘죽다’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40) - Ahora está muy jodido desde que murió la abuela. Debe de estar

a punto de *palmar*(47).

- **Cargarse**: 직접목적어와 함께 쓰이며 ‘~를 죽이다, 해치다’를 의미한다.

(41) - Beitman no *se carga* a ningún viejo en la novela - dice Roberto(54).

- **Rular**: ‘마리화나로 담배를 말다’를 의미한다. 수시로 대마초를 피우는 주인공들의 행위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동사이다. 그 의미상 한정된 사용역을 지닌다.

(42) - He *rulado* la ele y estoy fumando(55).

(43) Al salir, Roberto y Manolo están sentados a una mesa. Manolo está *rulando*(109).

- **Mosquearse**: ‘화내다, 신경질을 내다’를 의미하며, 이미 구어체에서 널리 사용된다.

(44) - Oye, ¿te has *mosqueado* conmigo?(76)

(45) - No *te mosquees*, que sí vamos a jamar a un seven(23).

- **Papear / Jamar**: 모두 ‘먹다’를 의미한다.

(46) - Anda, pon unos pinchitos, algo para *papear*, Manolo(88).

(47) - No *te mosquees*, que sí vamos a *jamar* a un seven(23).

- **Vacilar**: 젊은이들의 언어에서 이 동사는 ‘~을/를 놀리다, 점잖은 얼굴로 우스갯소리를 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보통은 직접적이나 간접목적대명사와 함께 쓰인다. 이미 구어체 스페인어에서 매우 안정적인 양상으로 사용되는 동사이다.

(48) - Venga Roberto, ¿no ves que te está *vacilando*?(93)

• **Abrirse:** 젊은이들은 ‘떠나다, 자리를 옮기다’는 의미로 이 동사를 사용하며, 재귀동사의 형태로 막 움직임을 시작하는 순간을 강조하고 있다. 같은 의미의 *ir*나 *marchar* 동사와 달리 항상 재귀형으로 사용되지만, 간혹 재귀형이 아닌 *abrir*의 형태가 사용되기도 한다. 규범어에서처럼 타동사가 아닌 자동사로 쓰이는 것이다.

(49) - Vale, tronco, ya has quedado muy bien. Ahora *ábrete*, que ya te hemos dicho que no vamos a fumar aquí(109).

(50) - Hala, Roberto, yo *me abro*. Llámame cuando vuelvas de la acampada(142).

• **Flipar:** ‘굉장히 좋아하다, 열광하다’를 뜻하는 비교적 신조어이며, 일반적으로는 간접목적대명사와 함께 쓰인다. 아직까지는 젊은이들의 언어에서 나타나는 양상이다.

(51) - En cuanto te vea Celia, va a *flipar*(200).

(52) - A mí lo que me *flipa* es esa guitarra siniestra...(138)

• **Enrollarse:** 일반적으로 재귀동사의 형태로 사용되며 은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장황하게 말하다’, ‘즐기다, 놀다’, ‘재빨리 분위기에 적응하다, 친해지다’, ‘성행위를 하다’의 뜻으로 맥락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며, 젊은이들의 말을 넘어 구어체 스페인어에서 널리 쓰인다.

(53) - Ayer *te enrollaste* con Rocío, me han contado(227).

• **Cortar(parar) el rollo:** 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며 명령형이 일반적이다. 이 또한 구어체 스페인어에서 매우 확산된 표현이다.

(54) - *Corta el rollo y vamos a un parque*, Miguel(53).

(55) - *Venga, para el rollo y dime a qué hora quedamos...*(210)

- **Tirar**: ‘작동하다, 기능하다’를 뜻한다.

(56) - *Qué poco tira tu escarabajo. A ver cuándo le jubilas...*(61)

- **Dejar colgado (a alguien)**: 직접목적어와 함께 쓰여 ‘~을/를 실망시키다’를 뜻하며, 이미 구어체 스페인어에서 빈번하게 사용된다. 한편, *colgar*동사에서 파생된 명사 *colgao*는 ‘멍청이’ 혹은 ‘마약투여자’의 의미로 사용된다.

(57) - *Venga, Roberto. No me dejarás colgado, ¿no?*(189)

(58) - *...luego encima aprobabais mientras que yo, como un colgao, me quedé repitiendo* Cou(53).

- **Hacer**: 구어체에서 ‘내키다, 마음에 들다, 적절하다’의 의미로 사용된다.

(59) - *Yo, si os digo la verdad, tronco, no me hace nada el rollo de la Sofia, el Raúl y compañía...*(20)

- **Quemar / Tostar**: 보통 *estar*동사와 함께 과거분사의 형태로 쓰이며, 젊은이들은 ‘피곤하다, 지치다’의 의미로 사용한다. *Quemar*는 구어체 스페인어로 확산된 양상을 보인다.

(60) - *Yo estoy demasiado quemado*(190).

(61) - *Me voy a mi cuarto. Estoy muy tostado*(143).

3. 비속어

젊은이들의 대화를 그대로 재현한 *Historias del Kronen*에서 욕설이나 저

속한 표현은 반복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현실이나 당면한 상황을 더 퇴폐적으로 묘사하고 표현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인데, 비속어는 대부분 구문의 일부를 이루거나 수식어, 감탄사의 유형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공통적으로 어휘의 파생이 수월해 매우 생산적인 양상을 보인다(Herrero, 1989: 185).

구어체의 특징이 강한 스페인어에서 비속어는 한국어에서와 달리 계층적 특징이나 교육 수준을 판단하는 잣대가 아닌 개인의 언어적 특징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인지 규범어에서 그 거친 욕설의 의미를 잃고 단순한 감탄사나 수식어, 큰 의미가 없는 관용구의 성격으로 변모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소설 주인공들의 대화에서 비속어는 강조된 형태로 등장하지만, 상대화자가 부모나 가족, 외부인 등이 될 때는 그 빈도가 크게 감소됨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성행위나 용변과 관련된 표현이 주를 이루고 있고, 종교와 관련된 것으로는 유일하게 *hostia* 만이 다수 발견된다. 물론 이제는 감탄사에 가까울 뿐, 빈번한 사용으로 인해 그 종교적 의미는 많이 퇴색했다고는 해도 특정계급에 대한 예의나 사회적·도덕적 금기에 대해 무감각한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을 잘 대변하고 있는 특징이라 하겠다.

1) 대표적인 호칭어

Cabrón(cabronazo), *hijo de puta(hijoputa)*, *mariconazo(maricón)* 등은 상황에 따라 애칭으로 혹은 욕설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호칭어이다. 물론 무관한 사람을 지칭하는 보통명사로도 사용된다. 너무나 빈번하게 사용되는데다가 아래의 어휘들에 비해 그 의미가 강하지 않은 *gilipollas(gilipollez, agilipollado...)*는 생략하기도 한다.

(62) - Mira, Yan, mira, *cabrón*. Éste se llama Carlos(32).

(63) - Que bien vivís, *hijoputas*. [...] vosotros ya tenéis el chaletito esperando...(177)

(64) - ¿Habéis visto al *mariconazo* de Michel cómo ha fallado el penalti?(12)

2) 종교와 관련된 어원에서 파생한 표현

• **Hostia(hostias):** 가톨릭에서 ‘성체’를 뜻하는 *hostia*는 감탄사나 저속한 의미를 더한 강조의 목적에서 쓰이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전통적인 카톨릭 국가에서 의미상의 몰락을 거친 대표 어휘인 셈이다. 젊은이들이라는 특정 계층을 넘어선 어휘이긴 하지만 당연히 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⁴⁾. 대표적으로 *coño*, *cojones*, *diablos*처럼 독립적인 감탄사나 직·간접의문문에 사용되어 극단적인 감정을 저속한 어감으로 표출하는데 쓰인다.

(65) - ¡Venga Álex, *hostias*! ¡Date prisa que tengo que irme!(103)

(66) - Qué *hostias* descansar. Ahora vamos a escuchar música y a fumar unos porros...(189)

(67) - No sé para qué *hostias* les pagan a los profesores(8).

(68) ...mira ahora al Miguel, que está subiendo y bajando las escaleras a toda *hostia*(219).

• **Ser la hostia:**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불유쾌한 상황이나 사람을 지칭하지만, 반어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69) - Joder, Celia, eres la *hostia*. Mira que no darte cuenta de que el Carlos se ha cortado el pelo...(200)

(70) - Si es que el Induráin es la *hostia*(141).

• **De/con mala hostia:** ‘기분 나쁘게, 억지로, 좋지 않은 의도로’를 뜻하며 부사적 기능을 수행한다.

(71) - ...el Herre y tu colega estarán ya de *mala hostia*(140).

(72) Pito *con mala hostia* y el taxista me hace un gesto obsceno con la mano(31).

4) ‘Dar de hostias’는 3.2. 장을 참고할 것.

3) 여성과 관련된 어원을 가진 표현

- **Coño:** Joder와 마찬가지로 매우 빈번하게 쓰이며, 사실 이미 젊은이들만의 언어적 특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짜증이나 놀라움, 분노 등을 표현하는 감탄사나 직·간접의문문에서의 사용이 일반적이다,

(73) - Sal a la autopista. Pero no, *coño*. No cojas la dirección norte, que ésa estoy hasta los huevos de pillarla(192).

(74) - ¿Por qué *coño* se empeña todo el mundo en psicoanalizarme?
(149)

- **Coñazo:**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접미사 -azo가 첨가된 형태로, 주로 싫거나 귀찮은 사람이나 사물, 상황 등을 지칭한다.

(75) - Mi hermana es un *coñazo*, está siempre fisgando y se entera de todo...(44)

(76) - Bah. Me tengo que levantar a la una, comer con ellos. Es un *coñazo*(227).

- **Coña:** 여성형의 형태로는 보통 ‘장난, 농담’의 뜻으로 사용되지만, 주로 *coñazo*가 의미하는 ‘짜증나는 일’을 표현할 때도 있다. 이때는 보통 dar 동사와 함께 쓰인다.

(77) - Yo pensaba que era *coña*(136).

(78) - A ésa no te la papeas *ni de coña*, Carlos(108).

(79) - Luego nos *dio la coña* durante varias semanas para que lo repitiéramos...(236).

4) 남성과 관련된 어원을 가진 표현

여성과 관련된 어휘보다 그 수가 월등히 많을 뿐더러 다양한 품사와 기능으로 사용된다. 또한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인다는 점이 전자와 다르다.

• **Cojones**: 현대 스페인어 구어체에서 *joder*와 함께 가장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는 어휘로서 감탄사로 종종 사용된다. León(1980: 51-53)은 그의 사전에 이와 관련된 다수의 표현을 수록하고 있으며, 여기서 파생된 어휘나 표현들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이 소설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이를 어휘의 퇴보로 보기보다는 계층별·지역별 사용양상의 차이나 작가의 문체적 특징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 **Cojonudo/a**: ‘대단한, 훌륭한, 멋진’의 의미로 구어체 스페인어에서 매우 빈번히 사용되는 형용사이다.

(80) - ...escucha este disco de los Pixis, que es *cojonudo*(189).

(81) - He alquilado una película *cojonuda*(32).

• **Acojonado/a(acojonarse)**: ‘겁먹은, 두려워하는(겁먹다, 두려워하다)’를 뜻한다.

(82) - Cuando viene mi tío de Valladolid se queda *acojonado* con el tráfico...(95)

(83) - *Te acojonarías*, ¿eh? Beitman no lo dudaría un segundo(190).

• **Acojonante**: 긍정적인 표현이며 ‘놀라울 정도로 좋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멋진’ 등을 뜻하는 형용사로 쓰인다.

(84) - ...el extraterrestre cuenta lo que le pasa y lo describe todo de una manera *acojonante*(57).

(85) - Ahora lo que fliparía es tener algo de música, de Leño o de la Banda. Uah, tronco, eso sí que sería *acojonante*(21).

• **Descojonado(descojonarse)**: ‘활짝 웃다, 비웃다’를 뜻하며 젊은이들의 언어에서도 신조어인 편이다.

(86) - ¿Qué coño le has contado a mi hermana para que se esté *descojonando*?(209)

(87) - Si hubiera venido, se hubiera *descojonado* al ver las caras que poníamos todos(230).

• **Tener cojones / Hay cojones:** 여기서 cojones는 ‘용기, 배짱’과 동일한 뜻으로 사용된다.

(88) - Eres un marica, no *tienes cojones*(193).

(89) - ¡Seguidme!, ¡a que no *hay cojones*!(21)

• **Estar hasta los cojones(los huevos):** 극도로 싫거나 지겨운 정도를 과장하며 구어체에서 안정적으로 쓰이고 있다.

(90) - No cojas la dirección norte, que ésa *estoy hasta los huevos* de pillarla(192).

(91) - *Estoy ya hasta los cojones* de ir a ver listas para que nunca salgan mis notas(88).

• **Hinchar los cojones (a alguien):** 기분을 상하게 하는 상황이나 상대에게 경고조로 사용한다.

(92) - Roberto, no *me hinchas los cojones* y vamos a entrar(61).

5) 성행위와 관련된 어원을 가진 표현

• **Joder.** 이미 나이나 계층을 떠나 구어체 스페인어에 깊게 뿌린 내린 어휘로서 감탄사의 역할 외에는 재귀형이 일반적이다. 동사로 쓰일 때는 ‘귀찮게 하다, 짜증나게 하다’를 뜻하고, 감탄사로서는 이미 그 저속한 의미를 잃었으나 이를 완곡하게 표현한 jo, jope, jolín등을 파생하기도 했다.

- (93) - Te he dicho que hoy no es el día, *joder*, que estoy cansado(192).
- (94) - Bueno, bueno, *joder con el machito*(227).
- (95) - ...lo último que quiere la gente es gastarse las pelas en seguros, y yo *me jodo* mientras todo el dinero, ¿para dónde va?(204)

• **Jodido/a**: 형용사의 형태로 ‘끝난, 끝장난’을 뜻한다.

- (96) - Además estoy *jodido* porque ahora todo va muy mal(188).

• **Putá / Puto**: 물론 이 소설에서도 사전적인 의미의 ‘창녀’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puto/a*가 형용사로서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여 저속하지만 표현력을 높이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 이 때 *puto/a*는 *disfernismo*, 이른바 ‘위악어법’의 기능을 수행하는 셈이다. 이는 구어만의 특징이며, 아울러 젊은이들의 언어사용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Herrero(1989: 187)에 의하면, ‘위악어법’은 젊은이들의 말에서 훨씬 많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완곡하게 표현해도 될 상황에 일부러 비속어를 선호하는 특징이 있는데, *Historias del Kronen*에서도 역시 이런 방식의 강조된 표현이 반복 등장하며, 명사를 직접 수식하는 형용사로는 거의 *puto/a*가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de puta madre*’의 경우는 부정적인 측면이 아닌 긍정적인 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다른 명사수식의 경우와 대조를 보인다.

- (97) - ¡Déjame pasar, *puto* Mercedes!(193)
- (98) - Mientras los demás curramos para ahorrar unas pelillas [...], vosotros ya tenéis el chaletito esperando [...]. Qué *puta* suerte tenéis(177).
- (99) - Eso sería *de puta madre*, Alberto(127).

• **Putada**: ‘지긋지긋한 일, 하기 싫은 일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을 가리킨다.

(100) - ¡*Que putada!*(120)

(101) - Hey, tú, Miguel. [...] *Una putada* que no esté tu novia...(217)

6) 신체의 일부와 관련된 어원을 가진 표현

• **Culo**: 비유적이고 통속적인 표현을 다수 파생시킨 대표적 어휘로서 그들 중 다수가 이미 한림원 사전에도 수록되어 있을 정도이다. 또한 León(1980: 58)도 규범어에 정착한 경우 외에 다양한 표현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에서 젊은이들에게는 친숙한 새로운 표현들이 눈에 띄는데, 이는 신조어 형성에 매우 생산적인 어휘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셈이다. 이들 모두는 주로 형용사의 역할을 수행하며 강조의 효과는 다른 방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102) - *Estoy hasta el culo* de todo. Yo lo que quiero ahora es salir de aquí...(63) → ‘estar harto’

(103) - Porque *está* siempre *hasta el culo* de gente(11). → ‘estar lleno’

(104) - Tiene un cuerpo muy bonito, pero es tonta *del culo*(15). → ‘muy’

(105) - Tu casa *está en el culo* del mundo(127). → ‘muy lejos’

(106) - Le doy una patada al balón, mandándolo a *tomar por culo* (21). → ‘lanzarlo muy lejos’

7) 배변과 관련된 어원을 가진 표현

• **Cagar**: 이 동사는 ‘망치다’의 의미로 비유적으로 사용되며, 보통 3인칭 단수 직접목적대명사 *la*와 함께 사용되어 상황 전체를 가리킨다. 또한 ‘me cago en ~’의 표현은 분노나 적대감을 강하게 표출할 목적으로 다양하게 쓰이는데, 아래 예에서 보다시피 *puta*, *Dios*, *hostia* 등의 어휘와 맞물려 매우 저속하지만 강력한 감정 표현 효과를 보이고 있다.

- (107) - Cuidado, que el Roberto se pone filósofo y entonces *la hemos cagado*, tronco(63).
- (108) - *Me cago en la puta*, ya hay uno allí que ha tenido que hacer la gracia de romper la copa. *Me cago en sus muertos*(175).
- (109) - *Me cago en Dios*(116).
- (110) - *Me cago en la hostia*. Siempre están igual. Estoy empezando a estar hasta los cojones de todo(63).

8) 동성애와 관련된 어원을 가진 표현

• **Marica**: 남성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욕설에 버금가는 호칭어이다.

- (111) - Eres un *marica*, Roberto. No tienes cojones(193).

• **Mariconada / Amariconado**: 각각 명사와 형용사로서, ‘marica 특유의 행위’와 ‘marica 같은 행동을 하는, 여성스러운’을 의미한다.

- (112) - Roberto pone Parálisis Permanente y Ramón le dice que quite esa *mariconada*, que ponga algo de Trashmetal(108).

- (113) - El Fierro está tan *amariconado* como siempre(201).

여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젊은이들의 언어에서 비속어의 사용은 다른 특징에 비해 그 수나 다양성 면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이는 ‘표현력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구어체의 특징과 부합하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언어의 품위나 구사 수준의 하락, 빈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4. 기타

위에서 언급한 어휘들 외에도 특히 젊은이들의 말을 특징짓는 표현들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만능어휘’로 분류할 수 있을 정도의 다양한 의미로 여러 맥락에 사용될 수 있으며, 바로 이 같은 점 때문에 청소년과 젊은이들의 어휘 빈곤화에 일조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편, 이 소설에서 쓰인 마약이나 돈을 지칭하는 은어는 상당히 다양하지만 범죄자들과 공유하는 영역이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청소년이나 젊은이들을 규정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 언어적 특징들을 일부 살펴보도록 하자.

- **Guay (muy bueno):**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표현으로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매우 선호하는 감탄사이자 형용사, 부사이며, 빈번한 사용으로 인해 매우 안정적인 용법을 보이고 있다.

(114) - Un amigo de Raúl. Un tío *guay*, nada que ver con el pesado de Raúl(11).

(115) - ...es un chaletito bastante majo el que tiene Fierro. Con piscina y todo. *Guay*, así acabaremos bañándonos(216).

- **Mogollón:** ‘다량, 다수’를 뜻하며, 사회일반의 구어체로 널리 퍼진 어휘이다.

(116) - Los Nirvana están tocando ya Licism cuando decido salir un poco del *mogollón* y tomar una cerveza(106).

- **Borde:** ‘악의가 있거나 예의바르지 않거나 불친절한 사람’을 의미하며 주로 명사나 형용사로 사용된다. 이 또한 근래에 쓰이기 시작한 신조어에 속한다.

(117) - Bueno, era sólo una pregunta, no te pongas *borde*(50).

- **Chungo:** ‘나쁜, 아픈, 어려운, 고장난, 위조된’ 등의 다양한 의미를 표현한다.

(118) - Lo *chungo* es que se va dentro de diez días(175).

(119) - Yo tengo entendido que está muy *chungo* ahora en Madrid (57).

• **Pintar / Pinta:** 동사는 ‘쓸모없다, 가치 없다, 무의미하다’를 뜻하며, 명사로서는 ‘외모, 외양’을 가리킨다.

(120) - Roberto tiene *pinta* de gángster...(52)

(121) - En el funeral estuvieron todos [...]. Incluso el camarero del Kronen, que no *pintaba* nada(236).

• **Movida:** Rollo와 마찬가지로 ‘사건, 일’ 등을 폭넓게 아우르는 어휘이며 구어체에서 계층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사용된다.

(122) - Cuando tengo alguna *movida*, se lo llevo al del garaje y punto(135).

• **Marcha:** 오락이나 유흥거리를 지칭하지만, 보통 ‘ir de marcha’는 밤새도록 바나 디스코텍을 전전하며 술을 마시고 춤추는 것을 뜻한다.

(123) - Vamos a enfartarnos, ¿no? Venga, coño, que hay que meter *marcha* a esta ciudad(103).

• **Comerse la olla(la cabeza):** 본 소설에서는 머리를 은유적으로 가리키는 la olla 대신 la cabeza를 직접 사용한 것이 흥미롭다.

(124) - A ver si tú sales del agujero en el que te ha metido Dedé, que te *está comiendo la cabeza*(135).

V. 결 론

*Historias del Kronen*에 반영된 젊은이들의 사회방언은 현 스페인 일각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충실한 재현이다. 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정되어있고 예술적인 조정이 가미되었지만 말이다. 주인공들을 통해 살펴본 스페인 젊은이들의 언어는 공통어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지만 현실적이라든가 즉흥성, 표현력 증대, 통사적 오류 등의 구어체적 특징을 전형적으로 나타내 보이며, 일부는 그로 인해 사회적 지탄을 받기도 한다.

사실 젊은이들의 대화가 구조나 특징에서 다른 구어체 변이형과 뚜렷이 구분되는 점을 보인다고 잘라 말할 수 없다. 훨씬 복잡하고 난해한 공통어라는 시각에서 볼 때, 젊은이들의 행위나 언어는 딱히 분류해야만 할 이유가 없는 특성을 보일 뿐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더욱 의식적으로 자신들만의 언어를 구사하려 애쓰는 것이다. 표면적이고 유행에 민감하면서 전염성이 강한 이들의 언어는 발음이나 형태, 문법, 어휘 면에서 매우 수월하게 인식되어진다. 그러나 아무리 표면적이고 한정된 영역에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특히 어휘는 통사적인 변화도 초래하며 규범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원인은 체계적이고 빈번한 사용에서 찾을 수 있으며, 또한 규범어의 내적 구조에 '위악적(disfemístico)' 요소로 삽입되어 쉽게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방법은 일반적이지 않은 어휘의 사용으로 인해 구나 문장 구조의 변이로 이어지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내적 소통을 위한 자신들만의 언어를 창조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젊은이들의 행위가 규범어에 작용한 결과이며, 이들의 언어, 즉 '사회방언'만의 표현력은 규범어에 반영되어 일반화되는 것과 동시에 일부의 화자만을 대변하던 도구로서의 효력은 점차 잃어간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스페인 젊은이들의 언어사용에 있어 어휘적인 특성, 즉 규범어와는 다른 의미나 구조로 사용되는 경우를 *Historias del Kronen*을 통해 일부 살펴보았다. 당연히 소설을 통해 이들의 언어를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고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현실반영에 충실했다고는 하나 일단은 작

가의 사적인 시각이 개입된 창작물이므로 현실과의 괴리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녹취나 인터뷰라고 할지라도 한 계층의 언어를 통째로 빠짐없이 인식하고 설명하기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화자나 청자 모두의 개인적 상황이나 배경 지식이 언어사용에 개입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가 비록 소설을 corpus로 하였지만, 젊은이들의 언어라고 지칭할 때 반드시 언급되어야만 하는 의미-어휘적 양상을 실제적인 표현과 함께 살펴보았다고 믿으며, 이 소설의 출간으로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이른바 사회의 ‘음지’를 기웃거리는 젊은이들만의 언어사용이 얼마나 규범 스페인어로 흘러들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부족한 형태·통사적 특성에 대한 고찰은 지면상의 이유로 논자가 다음으로 미뤄둔 후속 연구의 몫으로 남겨두는 바이다.

참고문헌

- VV.AA. 1996. *Clave: Diccionario del español actual*. Madrid: SM.
- Bríz Gómez, A. 1996. *Español coloquial: situación y uso*. Madrid: Arco Libros.
- Casado Velarde, M. 1988. “Lenguaje y contracultura.” *Comunicación y lenguaje juvenil*. Madrid: Fundamentos. 167-179.
- Herrero, G. 1989. “El coloquio juvenil en los cómics marginales.” *Comunicación y lenguaje juvenil*. Madrid: Fundamentos. 179-203.
- Mañas, J. Á. 1994. *Historias del Kronen*. Barcelona: Destino.
- Martín Sánchez, M. 1997. *Diccionario del español coloquial*. Madrid: Tellus.
- Miranda, J. A. 1998. *Usos coloquiales del español*. Salamanca: Colegio de España.
- Moreno Fernández, F. 1998. *Principios de sociolingüística y sociología del lenguaje*. Barcelona: Ariel.
- Ramoncín. 1996. *El nuevo tocho cheli: diccionario de jergas*. Madrid: Temas de hoy.
- Sánchez Lobato, J. 1992. “Lengua y sociedad.” *Actas del III Congreso Nacional de ASELE*. 59-69.
- Seco, M. 1973. “La lengua coloquial de *Entre visillos* de Carmen Martín Gaité.” *El comentario de textos*. 1. Madrid: Castalia. 357-375.
- Umbral, F. 1983. *Diccionario cheli*. Barcelona: Grijalbo.
- Varela, F., Kubarth, H. 1994. *Diccionario fraseológico del español moderno*. Madrid: Gredos.
- Vigara Tauste, A. M.^a 1992. *Morfosintaxis del español coloquial*. Madrid: Gredos.

조 해 진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E-mail: hjtinto@hanmail.net

-
- 논문접수일: 2009년 3월 30일
 - 심사완료일: 2009년 4월 15일
 - 게재확정일: 2009년 4월 27일